

연 세 대 학 교

총 여 학 생 회

32년의 족적 -

학생회와 학생간의 맞물림

이루어낸 성과와

파주한 위기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

학생회와 학생간의 맞물림

여성제

여성제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11월 학생회 선거에서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부재하게 되면서 '여성자치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학생회 체계가 여학우들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대표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단체였지만, 예산 책정과 운영의 문제, 총학생회나 학교와의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자치연합은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제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여성제는 2010년 제12회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총여학생회 연례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여성제는 학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지쳐있던 여학생들에게 위로로 다가가는 공간을 선사하고, 당시 등장했던 여성주의 담론을 녹아내려 노력한 행사입니다.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쥘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 역시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빵과 장미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어느 해에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실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고 어느 해에는 성폭력 가해 교수를 강단에서 추방하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성매매 워크숍

여러분 중 편의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을 다 합친 수는 약 3만 8천개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업소는 얼마나 많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성매매 업소 앞선 업체는 이보다 약간 더 많은 4만 4804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꾸준히 반성매매 워크숍을 진행해 성매매 산업이 왜 잘못된 산업인지, 성매매가 여성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反성폭력 학칙 개정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루어진 성과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총여학생회의 지속된 요구와 노력으로 2000년 10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1998년부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고, 결국 2000년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처음부터 잘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성폭력인지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부분도 존재했고 이러한 규정이 정

월경공결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경을 합니다. 월경 통의 경우 집 밖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여성부터 자전거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여성까지, 고통의 정도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006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월경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교에서는 여성들의 변화를 돌보는 차원에서 '월경공결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수업을 듣게 하고자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는 여학생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월경공결제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7년 2학기부터 공식 제도로 되었습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성평등 자치규약 제정 및 홍보



성평등 자치규약이 무엇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이 익숙하지 않다면 학생회 혹은 학내 자치단위에서 진행하는 숙박 행사장소에 종종 붙여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대자보를 떠올려 봅시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제12대 총여학생회 <Log-in 연세총여>는 학내 자치단위들과 연대하여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2000년 성평등 자치규약을 만들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해 홍보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와 함께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이하 여연자연)으로 발전하여 성평등 자치규약을 개정하고 새로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연자연은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혹은 감추어져 있었던 불편과 고민의 지점들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굿바이, 거짓평화

2010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2003.5.22

주최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교수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자인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교수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모습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폭력을 저지른 교수가 당당히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조리함을 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예시였습니다.

총여학생회는 강의실 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 규탄해 왔습니다. 가해 교수가 강단에 서는 걸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의실 내 언어폭력 사례들을 제보 받아 해당 발언을 한 교수를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강의실 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가해 교수

강의실 내 언어폭력은 단순히 한 명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차이 때문에 두 주체 사이의 위계가 발생하게 되고, 부주의한 교수의 발언은 곧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강의실 내 교수의 발언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 교수가 가해하는 성폭력 또한 마땅히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져라!!



일시 : 2002년 8월 20일

장소 :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지하) 소극장

뿌리부터 뽑아!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지난 10월, 며칠동안 연세대는 학교 안팎을 발라 뒤집어놓는 소동으로 들쭉였다. 그 소동의 진원지는 연세대 총학생회 상징치국에 의해 개최된 <성정지문화제>라는 행사였다. 장안의 신문과 매체들은 이 대학공동체의 이벤트에 대해 취파리메처럼 달려들어 앓다뒀어 보도했다. 내로라하는 어느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이 행사에 대해 준열한 충고와 당부를 아끼지 않기도 했다. 연세대 역시 이번 행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듣자 하니 이번 행사를 조직한 총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요구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한다. 모르긴 몰라도 미션스쿨이 가져야 할 예의 도덕적 정숙과 미덕에 대한 충정이 무너졌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난리법석은 자칫하면 대학공동체의 도덕과 문화를 가능케한 대전투를 예고하는 건지도 모른다. 또 실제로 안타까운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연

마주한 위기들

세대학교내의 과격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카타콤'의 회원들이 총학생회가 설치한 성상품과 조형물을 부서버린 것이다. 이들은 이미 행사 첫날부터 메가폰과 붉은 십자가를 동원해 대마귀 전도를 시작했던 바 있다. 이들은 매일 어김없이 행사장 주변에 출몰해 행사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의 발언곡은 연세대학교라는 하나님의 전당을 침범한 야귀와 악덕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세학우들을 마귀의 잔치로부터 도덕적으로 격리시키려던 이들의 신앙심은 그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행사 마지막날 이들은 완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행사의 상징격으로 설치되었던 성상품과 조형물을 부수어버린 것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총여학생회에게는 항상 일종의 반대파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 주장의 주요 골자는,

●페미니즘은 항상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

●성과 관련한 담론은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총여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의 돈을 건여 여학생들을 위한 사업에만 쓴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들의 언행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딘가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션스쿨이 가져야 할 예의 도덕적 정숙과 미덕에 대한 충정이 무너졌다는... (중략) 연세대학교 내의 과격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카타콤’의 회원들이...(중략) ...붉은 십자가를 동원해 대마귀 전도를 시작했던 바 있다...(중략) 행사 마지막날 이르러 이들은 완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후략)

(1995년)

‘우린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젠 지겨워 죽겠으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여성 학교』

무엇을 일깨우고 배울 것인가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에 대하여 어떻게 묻습니다. “총여에서는 무슨 페미니즘 미니를 얘기만 하나요? 영화도, 선전물도 온통 페미니즘 주장이어서 지루하단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심지어는 총여 내부의 관계자들조차도 “역시 성폭행이 아니 여성영화니 하는 말들에 식상한 느낌이 든다. 스스로가 관성화되어 버린 거잖아.”라는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인지 통 모르겠어요. 어젠 지겨워 죽겠으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라는 말로 해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의 문화 현상이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일 뿐인 페미니즘이라는 괴물에게 단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괴물의 장체를 파악하지 못한채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 한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 우리들 모두의 혼란의 출발지점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

전시 잘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걸어온 발자취를 직접 보시면서 총여학생회가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민과 판단으로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지켜본 총여학생회는 어떤가요?

본 전시를 보신 여러분은 서른 두 살의 총여학생회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갔는지 어렵듯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희를 응원하는 마음에 반갑게 전시를 지켜보신 분들도, 멀리서 풍문으로만 들던 사악한 단체는 당최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다가 뭘 또 한다고 하니 한 번 가볼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죠.

총여학생회가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모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총여학생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좌절의 경험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는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응원 한 마디에 더 큰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발자취를 계속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 연약하지만 굳건하게 저희의 발자취를 남기려 해요. 저희의 작은 발자국을 봐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의 길 위에 여러분들의 발자취도 남길 바라요.